다음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두 가지 상황이다.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는 열차가 있다. 열차의 브레이크는 고장이 난 상태이며 선로 중간에 다섯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다.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의 선로전환기를 당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인부 한 명이 죽게 된다. 이때 다섯 명을 위해 전환기를 돌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열차 앞으로 덩치가 큰 한 사람을 밀어 넣는다면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다. 이때 덩치가 큰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필자는 위 문제에 대해 ‘선로전환기를 당기면 안 되’고, ‘사람을 밀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다른 선로에 있는 한 명 또는 한 사람은 애초에 다섯 명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원래 다섯 명의 인부는 죽어야 할 운명이다. 따라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 원래 사건과 무관한 한 명이 사건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나머지 다섯 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한 명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선로를 바꿔도 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명을 살리는 것이 1명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사람의 가치를 메기는 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5명의 인부와 1명의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수만을 이용해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으며, 각각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의 가치도 다 다르다. 따라서 1명의 가치가 더 높을지, 5명의 가치가 더 높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셋째, 5명을 죽게 ‘둔’ 행위와 1명을 죽게 ‘한’ 행위 사이의 죽음에 대한 관여도는 확연히 차이 난다. 만약 선로를 바꾸지 않아(사람을 밀지 않아) 5명이 죽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죽게 ‘둔’ 것이지만, 선로를 바꿔 1명이 죽게 된다면 그건 선로를 바꾸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게 ‘한’ 것이 된다. 행동을 함으로써 일어난 죽음은, 행동하지 않아 일어난 죽음보다 더 많은 도덕적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선로를 바꿔 직접적으로 죽음에 관여한 것이 선로를 바꾼 사람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다. 넷째, 5명을 살리는 것이 곧 공리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떠올리며 5명을 살리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과연 5명을 살리는 것이 공리주의의 실현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선로를 바꾸지 않아 5명이 죽게 된다면, 선로를 바꾼 사람의 죄책감은 죽게 ‘했’을 때보다 줄어들 것이다. 또 다른 선로에 있던 한 명의 인부는 애초에 죽음과는 무관한 사람이므로 사건에 개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명의 인부는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로를 바꾼다면 다섯 명의 인부는 한 명의 희생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발생할 것이며, 또 선로를 바꾼 사람이 한 명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선로를 바꿀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의 행복 및 불행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선로를 바꾸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의 입장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간적으로는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발생한 윤리적 문제이며, 그에 따라 한 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